사회 수행평가 2021-3-16일

**핵심 내용**

인구 분포

세계 인구 분포 - **인구 밀집 희박 지역**

1. 아마존(자연적 요인)
   1. 열대 기후, 밀림이 많다.
2. 사하라 사막 및 오스트레일리아 내륙(자연적 요인)
   1. 매우 건조하여 농사 불가능함.
3. 시베리아 및 캐나다 북부(자연적 요인)
   1. 한대 기후라서 농사 불가능함.
4. 이라크, 시리아 등 전쟁 지역(인문적 요인)
   1. 전쟁으로 인한 인구 배출

세계 인구 분포 - **인구 밀집 지역**

1. 북위 **20~40~60**도
2. 한대 기후, **90%는 북반구** - 아시아 + 유럽
3. 아시아 : 방글라데시 = **계절풍 기후 + 평야 (논)**
4. **미국 북동부, 서부 유럽, 일본 태평양 연안(서쪽) : 인문적 요인(산업발달)** 뉴욕, 런던, 도쿄

우리나라 인구 분포

1. **밀집 지역**
   1. 서울/인천/경기도 = 수도권에 50% 거주
   2. 부산/울산/창원 해안지역 = 남동임해공업 지역
   3. 대구/광주 = 대도시(광역시)
2. **산업화 이전 - 1940년대**의 인구 분포 요인
   1. 자연적 요인 - 기후 + 지대 = 남서부 평야
3. **산업화 이후 - 1960년대**의 인구 분포 요인
   1. 인문적 요인 - 고임금 일자리와 인프라

**산업화 이후, 인구 분포 요인은 대립 관계가 뒤집혔다.**

자연적 요인이 강세였던 밭과 하천이 많은 땅은 산업화의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산을 광산으로 이용하는 등의 산업화를 산지에서 이루어 냄으로써 인구를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어쨌거나 이러한 ‘산업화’로 인하여 인구는 밀집하게 되었다. 산업화는 사람들을 모이게 만든다.

**남서부 평야 지대에는 논과 밭이 꽉 들어 찼고(*불가능*)**, **산업화 첫번째 단계 광물은 남동부**에 있었다. 그래서 **울산, 부산 곧 남동임해공업 지역에서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그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인문적 요인에 해당하는 고임금 일자리, White Collar 일자리)** 모인다.

결론적으로, 수도권과 남동임해공업 지역, 그 외 광역시(대도시)에 사람들이 모였다. ***모든 자연적 요인을 제치고 이동할 만큼 가치 있었던 것이 바로 산업화***다.

**문제 해결에 주어진 시간**

**5분**